

# 자기주도형 프로젝트 '야호전환학교' 출발

### 전주시 야호학교, 신입생 10명과 첫 번째 입학식 가져... 스스로 하고 싶은 일 찾으며 진로 성찰

청소년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닌 하고 싶은 것을 찾으며 자신의 진로에 대해 성찰하는 야호전환학교의 첫 번째 입학식이 열렸다.

전주시 야호학교는 9일 오후 2시 야호학교 4층 두빛나래 공연장에서 '야호전환학교 신입생 입학식'을 가졌다.

야호전환학교는 전주시가 청소년들이 자기주도적 참여와 활동을 통해 현재를 즐기고,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갖춰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제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018-2022)'을 직접 실행하기 위해 전주시 청소년들을 위해 직영으로 운영하는 전환교육기관이다.

이날 야호전환학교 신입생 입학식에는 기존 학교에서 휴학 또는 자퇴하거나 홈스쿨링 경험자 등 비진학 청소년 7명과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으로 유입된 청소년 3명 등 10명의 신입생이 참석해 전주시 야호전환학교의 첫 번째 학생으로 기록됐다.

이들 청소년들은 1년 동안 다양한 정규교과과정 이외의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사회 환경에 대해 탐구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전주시 야호학교는 9일 오후 2시 야호학교 4층 두빛나래 공연장에서 '야호전환학교 신입생 입학식'을 가졌다.

야호전환학교 학생들은 입학식 이후에는 앞으로 일과를 보내게 될 3층 별두나학습실로 자리를 옮겨 김승수 전주시장과 대화의 시간을 갖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학생들은 전주시가 야호전환학교를 운영하게 된 배경, 김승수 전주시장의 어린 시절, 정치 입문 계기 등 평소 궁금했던 사항을 질문하며 답소를 내놨다.

전주시 야호전환교육과 관계자는 "야호전환학교에 참여하는 청소년들

이 1년의 자기주도형 프로젝트 과정을 통해 자아 정체성을 찾는 시간을 갖고 전주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갖는 전주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아동친화도시 전주시 '국제어린이마라톤대회' 열려

### 시·세이브더칠드런·연합뉴스, 오프라인·비대면 런택트 운영

5월 어린이주간을 맞아 모든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응원하는 국제어린이마라톤이 전주에서 열렸다.

전주시와 세이브더칠드런, 연합뉴스는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3일 간 덕진공원 등 전주시 일원에서 '2022 국제어린이마라톤'을 개최했다.

이번 국제어린이마라톤에서는 모든 참가자들이 '작은 한걸음이 신생아들의 생명을 살립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전 세계 아동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시천코스 및 포토존 등 오프라인 행사장 운영과 비대면 런택트(Run+Ulnact) 달리기 방식이 병행된 이번 마라톤대회에서 참가자들은 3일간 국제어린이마라톤 공식 앱을 활용해 원하는 장소 어디든 4km를 달렸다. 또, 1km

를 달릴 때마다 알람으로 전달되는 신생아 생존권 보장을 위한 미션도 수행했다.

또한 시는 행사기간 동안 덕진공원과 세병공원, 국립무형유산원 등 총 3곳에 오프라인 행사장을 마련했으며, 완주 인증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과 100주년 어린이날 기념 어린이선언문 작성 등 마라톤 외에도 아동과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현장 이벤트도 진행했다.

이번 대회의 참가비(1인 15000원)는 전액 세이브더칠드런을 통해 베트남 소수민족의 산모와 신생아 사망률을 줄이고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 사업에 활용된다.

황관주 전주시 기획조정국장은 "올해는 어린이날 100주년을 기념해 어린이주간에 개최된 만큼 다양한 놀이체



전주시와 세이브더칠드런, 연합뉴스는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3일 간 덕진공원 등 전주시 일원에서 '2022 국제어린이마라톤'을 개최했다.

합과 아동권리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참여형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면서 "앞으로도 아동친화도시로서 아

동의 기본권 보장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전주시, 주택가 주변 주차 공간 조성 지원

### '내 집 주차장 그린파킹 사업' 연중 접수

전주시가 주택가의 유희시설이나 담장, 대문 등을 개조해 주차장을 조성하는 시민들에게 공사비용을 지원한다.

시는 주차 공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단독주택 거주민과 아파트 입주민들을 위해 주차장 조성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내 집 주차장 그린파킹 사업'을 연중 접수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주택건설촉진법 및 건축법에 따라 지난 2013년 12월 17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이나 건축허가를 받은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골목길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의 단독주택이다.

공동주택의 경우 단지 내 부대시설과 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등 유희시설에 대해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건축허가 부서의 용도변경 행위허가를 받아 신청할 수 있다.

해당 공동주택에는 주차장 1면당 50만 원, 최고 20면(1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독주택 소유자가 담장이나 대문을 철거하고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적게는 150만 원에서 많게는 20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받는다.

단, 주차장 조성비용은 1회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주차장 조성 후 3년 간은 주차장으로 유지해야 한다. 담장을 쌓거나 타 용도로 전환하는 등 주차장 기능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공사비 전액이 환수된다.

희망자는 전주시 교통안전과(완산구 기린대로 213, 대우빌딩 5층)로 방문하거나 전화(063-281-5021)로 문의하면 된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09년부터 '내 집 주차장 그린파킹 사업'을 시행해 지난해까지 총 1075면의 주차 공간 조성을 도왔다.

이강준 전주시 시민교통본부장은 "대규모 공동주택 조성도 중요하지만, 주차공간 부족으로 이웃 간 다툼이 일기도 하는 주거지역의 주차장 확충도 필요하다"면서 "그린파킹 사업을 통해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주민복지공동체사업 '함께' 참여단체 모집

###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

전주시가 단 한사람의 시민도 소외되지 않는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주민 주도의 복지공동체를 키우기로 했다.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이사장 이병관)은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할 공동체를 지원하기 위해 2022년 주민복지공동체사업 '함께'에 참여할 단체를 공개 모집한다.

주민복지공동체지원사업 '함께'는 지역사회 복지 문제를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지역 내 관계망을 통해 해결하는 복지공동체 프로그램을 공모 받아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재원배분 사업이다.

이번 공모에는 사회복지기관 및 단체, 비영리 민간단체, 5인 이상 주민모임 복지공동체 등이면 참여할 수 있다. 전주사람은 주민참여도와 사업타당성, 실현가능성, 효과성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단체에 최대 500만 원 이내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김윤상 기자

단, 동일한 사업 내용으로 기존에 다른 기관의 지원을 받았거나, 받기로 확정된 사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모를 희망하는 단체는 오는 22일까지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 누리집(www.jwfw.or.kr) 또는 전주시청 누리집(www.jonju.go.kr) 알림마당/새소식란에서 내려 받은 신청서를 작성해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 복지공동체팀(070-4495-8853)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이에 앞서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은 지난해에도 이 사업을 통해 △세대 이웃간 소통을 위한 학교밖청소년과 슬기로운 선배 시민의 나눔 활동 사업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먹거리 나눔 공동체 사업 등 복지공동체 활동을 지원한 바 있다.

이병관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 이사장은 "공모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사회에 주민 복지 문화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365건강증진 프로그램' 시행"

### 우범기 전주시장 예비후보, 'Health Link' 구축도 약속

더불어민주당 우범기 전주시장 예비후보가 건강한 전주시 만들기 일환으로 '365건강증진 프로그램' 시행과 '전주시 Health Link' 구축을 약속했다.

우범기 예비후보는 9일 정책발표를 통해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로 위축된 시민의 삶에 건강과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하다"며, 시민건강증진 프로그램 마련의 배경을 설명했다.

365 건강증진 프로그램은 △3개 건강관리 영역 △5개 건강관리 연령군 △6개 건강관리 지원 방법으로 세분화해 '1대1 맞춤관리'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한 마디로 '내 나이, 내 질병에 최적화된 맞춤 건강관리'라고 할 수 있다.

우 예비후보에 따르면, 먼저 건강관리 영역을 3개 분야로 나눠 개개인의 상태에 맞는 맞춤처방을 실시한다.

3개 건강관리 영역은 체력, 근골격계질환, 5대 질병(암, 뇌졸중, 심장병, 당뇨병, 우울증) 등이다. 나이에 따른 건강관리와 처방정도 달라진다. 5대 연령군 즉 유아, 청소년, 청년을 비롯 중장년과 노인 5개 연령대를 세분화해, 적절한 체력증진 방법과 운동처방, 재활방법 등을 제시하게 된다.

6개 건강관리 지원 방법은, 면담과 검진을 통해 운동처방과 재활 운동지도, 건강환경 조성, 건강도구 지원 등으로 진행된다. 특히 노인, 장애인 등 건강취약계층 대상으로 방문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관리 교육도 병행해 스스로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건강환경 조성이란 구체적으로 노인 및 장애인 밀집지역을 건강특구로 지정해 생활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 건강관리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다.

우범기 후보는 "특히 이동약자를 위한 헬스케어 접근성 향상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365건강증진 프로그램' 활성화와 이용편의를 위한 플랫폼 역할을 할 '전주시 Health Link'도 구축한다. 'Health Link' 서비스는 365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운영되며, 시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쉽고 편리한 가이드 라인으로 꾸민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지역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수립 못지않게 효율적인 적용과 실행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환경개선, 인력양성 방안 등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노인수당 지급·버스무료승차 추진"

### 김경민 전주시장 후보

국민의힘 김경민 전주시장 후보가 노인수당 연 100만 원(만 70세 이상), 버스무료승차(만 65세 이상)를 약속했다.

김경민 전주시장 후보는 9일 기자회견을 갖고 "어르신이 살기 좋은 고령친화도시를 추진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복지도시, 전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어르신들을 위한 공약으로 △65세이상 사내버스 무료승차 △70세이상 연 100만 원 노인수당 지급 △경로당 무선소방시설 설치 △일자리 지원사업 확대 △파크골프장, 게이트볼 경기장 10개소 증설 △취약계층 운전자 진료서비스 추진 등의 사업을 펼칠 예정"이라고 약속했다.

또한 김 예비후보는 "장애인을 위한 공약으로는 △장애인수당 연 100만 원 지급 △이동편의 위한 장애인 풀 이용 시간 확대 및 클대수 확대 △장애인회



관 건립 △장애에 영유아 특수교육 기회 확대 △장애인 교육프로그램 설치·운영 △장애인방식 설치·운영 등의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마음치유 프로그램으로 시민 심신 회복 돕는다

### 전주시 마음치유센터

전주시 마음치유센터는 9일부터 오는 6월 3일까지 4주간 제2기 마음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2기 프로그램은 앞서 진행된 1기 프로그램 중 참여자 만족도가 높은 프로그램과 함께 새로운 프로그램도 선보일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매주 화요일에는 원만한 대인관계를 원하는 대학생과 휴학생을 대상으로 한 음악치유 프로그램인 '소통의 하모니'가 진행된다.

또한 매주 수요일에는 진로를 고민하는 20대 청년을 대상으로 한 영화치유 프로그램인 '인생 한 컷'과 일상에 지친 전업주부를 대상으로 한 원예치유 프로그램 '나를 꽃피우다'가 각각 진행된다.

이어 매주 목요일에는 50세 이상 퇴직자를 대상으로 한 독서치유 프로그램인 '행복 책읽기'가 진행되고, 매주 금요일에는 자신감을 되찾고자 하는 성인과 코로나19 우울감으로부터 회복

을 원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산림치유 프로그램인 '힐링을 거닐다'가 예정돼있다.

마음치유 프로그램은 상시 무료로 운영되고 있으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은 시민은 전주시 마음치유센터 대표번호(063-281-8576)으로 전화 신청하면 된다. 프로그램별 인원 모집은 7명 선착순으로 제한되며, 프로그램 세부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보건소 누리집(health.jonju.go.kr)을 확인하면 된다.

이에 앞서 전주시 마음치유센터는 코로나19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의 전환 이후 대면 방식의 마음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지친 시민들의 심신 회복에 앞장서왔다.

1기 마음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시민은 "오랜만에 나와서 다른 사람들과 감사님이랑 이야기를 나누니 마음도 안정되고, 몸과 마음이 치유받는 느낌을 받았다"며 "다른 프로그램도 참여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윤상 기자